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도참고자료 |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즉시 배포 2023. 4. 12.(수) 09:00

한국과 유럽연합,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 강화 추진하기로!

- 개인정보위원장, 유럽연합 집행위 사법총국 장관 면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4월 11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을 **면담****하였다.

* 유럽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에서 사법 관련 업무 총괄

**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 동석

유럽연합과 한국은 지난 2021년 12월,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음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레인더스 장관은 당시 적정성 결정을 담당하여 개인정보위와 남다른 인연을 가지고 있다.

* 적정성 결정 : 유럽연합 역외의 국가가 GDPR**이 요구하는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있는지를 확인·인정하는 제도

**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18.5.25. 시행)

이날 **고학수 위원장**은 레인더스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며, **정보 주체의 실질적인 권리가 향상**되고,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 구조가 정착**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측은 **2021년 유럽연합의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이 한-유럽연합 간 데이터 이전에 대한 협력 수준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고 위원장은 앞으로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에 대한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임을 설명하고, **데이터 이전에 관한 국제적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을 한국과 유럽연합이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변정수 (02-2100-2481)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성은 (02-2100-2482) 박민영 (02-2100-249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1 **한-EU 공동언론발표문(Joint Press Statement) 번역본**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과 EU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디디에 레인더스 커미셔너의 공동언론발표문

서울, 2023. 4. 11

오늘 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과 디디에 레인더스 사법총국 커미셔너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흐름에 대한 공고한 협력관계(partnership)를 환영하고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유럽연합과 대한민국의 데이터 보호 체계 간의 높은 수준의 동등성(high degree of convergence)을 기반으로, 유럽연합은 2021년 12월에 유럽연합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의 개인정보의 이전(transfer)에 대한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채택하였다.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승인(authorisation)이나 이전 메커니즘(transfer mechanism)의 필요 없이 유럽연합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흐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적정성) 결정은 민간 분야와 공공 분야를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기업 간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흐름(cross-border data flows)을 지원하고 규제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최근 시행된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의 데이터 보호 체계 간의 시너지가 한층 강화되었다. 양측은 이러한 법 개정으로 프라이버시와 정보의 흐름에 있어서 보다 긴밀한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 대해 동의(agree)하였다. 또한 양측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 데이터 흐름의 체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동의하였다.

참고2 **한-EU 공동언론발표문(Joint Press Statement) 원문**

Joint Press Statement by Haksoo Ko, Chairpers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Didier Reynders, Commissioner for Justice of the European Commission

Seoul, 11 April 2023

In their meeting today, Chairpers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Haksoo Ko and the European Commissioner for Justice Didier Reynders welcomed the strong partnership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U on privacy and personal data flows, and explored possible avenues for further cooperation.

Building on the high degree of convergence between the Korean and EU data protection regimes, the European Commission adopted an adequacy decision for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 from the European Union to the Republic of Korea in December 2021.

On that basis, personal data travels safely from the EU to the Republic of Korea, without any need for further authorisations or additional transfer mechanisms. Because of its broad scope – covering both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 – the decision supports cross-border data flows between businesses and facilitates regulatory cooperation.

The recent reform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as further increased the synergies between the data protection framework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U. Both sides agreed that this opens up new possibilities for even closer cooperation on privacy and data flows. They also agreed to explore ways to further develop the framework for Korea-EU data flows.